

/지역 단신/

진도 검정쌀·구기자 등 美 수출

진도에서 생산된 구기자, 검정쌀 등 친환경 농·특산물을 이용해 만든 전통 가공식품이 미국에 첫 수출됐다. (사진)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진도전통식품(대표 김영숙·전남 우리음식연구회 회장)이 '구기자·검정쌀 방울유과' 등 전통 가공식품 8품목 6t 분량(1천 500만원 상당)을 7일 미국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전남도에서 위촉한 '해외동포 명예수출 에이전트'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남무역에서 수출품을 집하한 후 미국 뉴욕으로 직접 운송하게 된다.

이번에 수출되는 품목은 진도군의 특산물인 검정쌀과 구기자를 주 원료로 해 만든 전통 가공식품인 '구기자·검정쌀 방울유과' 300kg을 비롯, 구기자 고추장·된장 1t, 고들빼기·갓김치 4t, 검정쌀 500kg 등 총 6천25kg이다.

또한 9월에는 찹쌀과 콩가루 30%를 첨가해 만든 퓨전 쌀과자 '콩개지리' 제품을 캐나다에 수출할 예정이다.

김영숙(60)대표는 "방울유과는 기름에 튀기지 않고 구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맛이 훨씬 담백하고 열량이 낮은 것이 특징"이라며 "16년 동안 국내시장에서 쌓은 전통식품 가공사업의 노하우를 살려서 남도음식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기용기자 song@

완도 금일 '다시마 축제' 성료

제 4회 완도 금일 다시마 축제가 지난 5일 금일읍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는 이용호 국회의원, 김종식 완도군수, 김진희 완도경찰서장, 박철민 해경서장을 비롯, 주민, 관광객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마 열가판, 다시마 개발음식 시식, 다시마 미용체험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다시마는 완도군이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브랜드 수산물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목포 앞바다 해수욕장 관측

서해해양조사사무소 두달간

국립해양조사원 서해해양조사사무소는 이달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목포주변 해역에 대한 장기 해수유동관측을 실시한다.

이 지역 해역은 많은 섬들에 의해 해수의 흐름이 복잡하고 유속이 강하여 잦은 선박 사고와 유해적조에 의한 주변 양식업에 상습적인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수유동정보제공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조류정보제공이 필요한 7개의 주요 관측지점을 선정하고 해양조사선 바다로 3호(150t급)를 동원, 유속계 및 장비계류용 시스템을 이용해 2개월 동안 장기관측하게 된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이번 관측결과가 나오면 해상교통안전확보와 적조방제업무 및 해난구조업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se@

담양·화순군 수질개선 재원 비상

이달부터 '영산강 오염총량제' 시행 2010년까지 각각 338억·60억 부담

이번 달부터 담양군과 화순군이 '영산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경청에 따르면 담양군은 오는 2010년까지 용면 등 '영산강 분류 A지점'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를 1ℓ 당 3.0mg에서 2.1mg으로 개선해야 하며 화순군은 같은 기간까지 1ℓ 당 6.8mg인 BOD를 5.2mg으로 개선해야 한다.

환경청은 담양군이 수질을 목표만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5천371.48kg

씩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4천173.01kg으로 1천198.47kg을 줄여야 하며, 화순군은 416.4kg→355.0kg으로 61.4kg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수질개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년내에 담양군은 전체 사업비 1017억원의 30%인 338억원, 화순군은 60억원의 지방비를 확보해야 돼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차질없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더욱이 국고지원이 차질을 빚을 경우 지방비 부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2010년까지 수

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 마을별 하수도 신설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계획 기간내 준공을 장담할 수 없는 등 목표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지역 관계자들은 "수질개선이 넘는 수질개선 사업 가운데 일부라도 국고지원이 차질을 빚을 경우 지방재정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전남지역 특성을 감안해 목표 연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청은 담양군 등이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국고지원 제한 ▲폐수배출시설 입지 제한 ▲'총량초과부과금' 부여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화순=조성수기자 css@



공무원들의 책임 떠넘기기로 준공되지 보름이 넘도록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화순 광덕 지하주차장. /화순=조성수기자 css@

41억 들인 주차장 보름째 문도 못열어

화순군 부서 책임공방만

41억원을 들여 완공된 주차장이 공무원들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문도 열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화순군은 광덕택지지구 주변의 교통혼잡을 덜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해 8월 화순읍 광덕리에 136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착공, 지난달 20일 완공했으나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이처럼 주차장이 방치된 이유는 주차장 건설을 담당했던 도시경제과와 주차장 운영을 담당할 건설과간의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도시경제과 관계자는 주차장이 완공된 후 개장에 필요한 건축물대장과 시설 현황 등이 담긴 관리전환 공문을 건설과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설과 관계자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공문을 도시경제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도시경제과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개장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감사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공무원들의 태도로 인해 당초 목표했던 광덕택지지구 주변 교통혼잡은 줄어들지 않는 등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도시경제과와 건설과간의 업무를 조율해 조속히 주차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순천 콜센터 내달 본격영업

市-엠보이스社 대표

100석규모 협약 체결

순천시에 들어설 콜센터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 순천시는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노

규 시장과 엠보이스사 김승유 대표가 콜센터 유치 본협약 체결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콜센터는 주판사인 '엠보이스(콜센터 구축 및 운영전반)'와 '에스팩트(시스템)', '데이콤(통신인프라)' 등 3개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됐으며 사업 초기인 올해는 100석 규모로 시작해 향후 200석을

완도경찰, 도서지역

출장 민원처리 호응

완도경찰서(서장 김진희)가 지난 4월부터 도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지 민원처리팀'을 운영,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지 민원처리 서비스는 200여개 섬으로 이루어진 완도군의 특성상 경찰서 찾은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주민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것을 감안한 것.

완도경찰서는 매주 화요일 금당·금일·생일·청산도 등지를 찾아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 형사사건 관련 민원상담 등을 하고 있다. 완도경찰서의 현지 민원처리 서비스는 우수혁신사례로 인정돼 지난달부터 도서를 관할하는 전국 경찰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한편, 완도경찰서는 전국 234개 경찰서중 '국민생활 안전확보 100일계획' 평가에서 전국 3위를 하는 등 혁신적인 경찰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목포~울산 고속버스 운행

목포와 울산을 잇는 신규 고속버스 노선이 개설돼 11일부터 금호고속 등 3개사 버스가 1일 1회 왕복 운행된다.

운행 소요시간은 5시간 30분이며 요금은 2만5천300원(편도)이다.

회사별 버스 운행시간은 금호고속은 목포출발 오전 11시, 울산출발 오후 5시 30분이다. /목포=김진수기자 jsk2229@

목표로 사업규모를 확장할 계획이다.

'엠보이스'는 음성인식 기술을 보유한 콜센터 관련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며 '에스팩트'는 콜센터 기술의 핵심인 '인아웃바운드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 45개국 1천800여개 업체에 공급해 연간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미국계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순천시의 콜센터 유치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이며 이후 지역내 대기업 콜센터 유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무안 농기센터, 蓮 新 品 3 種 育 種 성 공

무안군 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연(蓮) 신품종 육종에 성공했다.

이번 신품종은 백련 2품종과 홍련 1품종으로 3년간의 연구 끝에 '자연 교잡에 의한 선발 육종' 방식을 이용해 개발된 것.

무안군 농기센터는 1년간 증식해 특성 고정여부를 지켜본 후 품종이름을 붙일 계획이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이번 신품종선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박삼균(52)지도사는 "회산 백련과 백련과 나주 월성저수지 홍련 등을 활용해 2003년부터 육종에 나서 결실을 맺었다"며 "자생 백련의 생태와 대형 식용련의 특징을 그대로 지녀 식용 가공성뿐만 아니라 원예적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보트타고 연꽃 길 탐사 체험을"

무안 백련축제 11일 개막

무안 회산백련지에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10회 무안 백련대축제 기간동안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매년 백련대축제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신비의 연꽃길 보트탐사 체험을 비롯해 연 씨앗으로 기념품 만들기 체험, 은으로 연꽃 만들기, 연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올해는 더욱 알차게 준비되고 있다. 특히 연으로 비누만들기 체험은 아토피성 피부염에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어린이는 물론 학부모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되고 이밖에도 체험학습장에는 백련 천연염색, 연포도 자가 빗기 등의 체험도 할 수 있다.

또 어린이들이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 나오는 연꽃 분수대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다양한 수생식물과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으며 옛 조상들이 눈에 물을 대는 방식의 수차로 물을 퍼올리는 체험(무자위)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준비돼 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수상 유리온실은 회산백련지의 새로운 볼거리로 관광객의 인기를 끌고 유리온실 내부에는 카페테리아와 기념품 판매장, 스타가 마련돼 유익한 학습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월출산 황토수박 시식회' 영암군은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영등포구청 후원으로 8일 영등포구청청 당상공무원과 영등포구역 광장에서 영암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열었다. 이날 '월출산 황토수박 시식회'에서 김일태군수가 수박을 잘라 방문객들에게 권하고 있다. /영암=김현남기자 hnkim@

36년째 마을주민 '백중 윷놀이'

구례 간전면 효곡분교서 21개 마을 대결

36년째 음력 7월15일 백중(百中)이면 윷놀이판을 벌이는 마을이 있어 화제다. 8일 구례군 간전면 효곡분교에서는 지역내 노인과 청·장년부녀자 등 21개 마을에서 300여명이 참가, 설이나 정월대보름때나 볼 수 있는 윷놀이가 결판까지 벌어졌다.

간전면에서 음력 7월 15일 백중(百中)을 맞아 윷놀이판을 벌인 것도 올해로 벌써 36년째. 간전면 윷놀

이는 1970년 간전면 삼산리와 수평리 마을 주민들이 노년과 장년 두 패로 나뉘어 백중날 두 마을간 친목을 다지기 위해 갖게 된 게 지금까지 전해 오고 있다.

2000년부터는 면 이장단이 주최가 돼 마을별로 돌아가며 윷놀이 대회를 갖고 있는데 이날 만큼은 잠시 일손을 놓고 과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농삭일로 지친 피로를 풀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편안하고 깨끗한 고급객실!

그 명실 그대로

25년 고객사랑!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음식 만들기 25년!!

신선한 고급재료, 정갈한 음식맛

경상관광호텔